

여우의 질병

김 찬 규*

1981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여우가 수입되어 사육을 시작한 것이 여우사육의 시초이며 현재는 150여 농장에 1만여두가 사육되고 있고 그 수는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인 모피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기술적 축적은 되어 있으나 모피를 생산하는 것은 이제 시험사육을 거쳐 시작에 불과하므로 외화절약 등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여우의 사육 및 건강관리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기술적 지도와 계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수의사들은 특히 위생관리와 질병의 예방, 치료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기술적 기여를 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막는데 동참하여야 하며, 점차 정착되어 가는 특수 가축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된다.

1. 디스탬퍼 (Distemper)

Canine에 속하는 동물에서 흔히 발병되며 여우의 경우에도 발병됨을 볼 수 있다. 초기증상은 Anorexia (loss of appetite), eye & nasal discharge, depressed condition을 나타내며, 심하면 각막궤양과 농양성 비루로 지저분하고 기관지염이나 폐염증상을 나타낸다.

치료로는 B. S. K.와 같은 virus치료제, gamma globulin, antibiotics 등을 주사하고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나 일단 감염되면 경제적 손실이 크

*한국야생동물병원

므로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생후 8~10주에 꼭 실시하고 4주후에 재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망율은 50~70%이다.

2. 전염성간염 (Infectious hepatitis)

바이러스성 간염이라고도 하며 증상은 식욕부진, 몸을 떨며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나중에는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결국 폐사한다. 급속도로 전염되며 감염된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생존하므로 감염된 축사는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후 8~10주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예방하도록 한다.

20~80%의 사망율을 나타내나, 치명적이 아닌 경우는 눈에 백태가 끼고 인후두염, 장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항생제와 메티오닌, 비타민제 등을 주사하여 치료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3. 파보바이러스감염증 (Parvo virus infection)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병되며 개를 통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증상은 설사와 때로 구토를 동반하고 발열증상과 혈변을 발하기도 한다. 식욕부진 및 절폐, 침울 등은 물론 탈수현상을 동반하므로 폐사율이 높다. 개에 사용되는 백신을 주사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으며 디스탬퍼나 간염백신과 함께

접종하고 재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내부기생충

모피동물에서 모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가 기생충 감염이다. 기생충의 감염이 많으면 영양장애를 초래하여 털에 윤기가 없으며 품질이 떨어진다.

내부기생충으로는 회충, 십이지장충, 촌충, 폐충 등이 있으며 구충제로는 개에서 사용되는 종합구충제를 사용하면 무난하다. 기생충감염이 심한 여우를 관찰해 보면 간혹 구토를 하며 안구나 입안의 구강점막 등이 창백하여 빈혈증상을 나타내고 먹기는 잘하나 살이 찌지 않고 성장발육이 좋지 않으며 복부만 팽대되어 있다.

분만된 새끼는 3주부터 구충을 실시하며 생후 6개월까지는 매달 1회씩 재차 구충을 실시한다.

5. 외부기생충

① Ear mite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병되며 사육장 주위가 불결한 곳에서 사육되는 여우에서 볼 수 있다. 귀와 다리 등에 진드기가 서식하여 발생되는데 소양증이 생기고 피모가 습진상태로 진전되며 간혹 진드기가 귀안으로 침입하여 신경계통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hydrogen으로 귀안을 소독하고 ointment로 도포해 주는 것이 좋다.

살충제를 여우사 주변에 뿌려 진드기의 침입을 막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Scabies

개선충에 의한 감염으로 목, 배, 다리사이 등에 주로 서식하며 몸 전체로 퍼져 나간다. 심한 소양증을 나타내고 털이 빠지고 피부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우의 모피생산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벤졸벤조에이트를 스프레이하거나 피부에 문질러 주며 피부염이 심하면 연고제를 도포한다.

③ Ring worm

Fungus infection으로서 머리주위, 눈, 경부, 흉부, 엉덩이 등에 발생된다.

피부가 비늘같이 되고 탈모현상이 일어나며 심하면 피부가 비후해지고 심한 소양증을 발하며 긁으면 상처가 생겨서 2차 감염을 초래하게 된다.

Fungicidal drug(defungit)을 1~3회 환부에 spray하거나 문질러 도포한다.

6. 영양대사장애

① Rickets

Vitamine A와 Ca. P. 등의 결핍이 원인이 되며 일광욕과 운동부족 등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린새끼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뼈가 약해서 다리가 굽어 버리는 경우이며 성장발육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어린새끼의 포유중절이 부족할 경우에 발병되기도 한다.

생선류 등을 공급하며 사료첨가제를 투여함으로써 예방, 치료될 수 있다.

② Chastek's paralysis

일종의 thiamine deficiency로서 바다고기를 주로 먹이는 여우에서 많이 발병된다. 증상은 식욕이 떨어지고 여위며 심하면 머리가 돌아가거나 마비를 일으킨다. vitamine B₁ 주사를 하거나 간이나 곡류 등을 급여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

③ Biotin 결핍

모피의 착색 등에 관여되는 biotin 물질이 부족함으로써 발병되는데 발육 및 성장장애를 초래하여 모피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biotin첨가제를 사료에 혼합투여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

7. 식중독

갑자기 식욕부진 및 절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는 한번에 많은 수가 폐사하게 된다.

부패된 사료나 중독성 물질을 섭취할 때 모집군에서 발병되며 특히 사료가 부패하기 쉬운 여

름철에 많이 발병된다. 결국 위생적 관념이 부족한 농장에서 발생되므로 사료의 운반, 저장 및 조리과정 등을 위생적으로 청결히 하여야 하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 론

여우의 질병을 분류해 보면 전염성 질병과 기생충감염, 영양대사장애성 질병, 식중독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의 서술하지 않은 일반적인 질병이 있으나 무엇보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우가 모피생산을 위하여 사육되

는 동물인만큼, 일단 질병이 발병되면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치료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기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vaccination 실시, 내외부 기생충구충실시, 영양대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역프로그램에 의한 소독 및 전염원을 제거토록 하며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함으로써 효과적인 건강 관리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화기질병 전문예방 치료제

스티뮤렉스[®]

STIMULEX

스티뮤렉스는 Denmark의 BIOFAC 회사가 특수한 공법으로 개발한 순수한 제 1 위 내용물 추출제제입니다.

송아지 설사의 예방과 성장촉진효과

어린 송아지에 스티뮤렉스를 투여하면 설사 발생율을 96%나 감소시키며 제 1 위가 발달하게 되어 영양소의 소화흡수율을 증가시키므로 증체량이 20%이상 증가됩니다.

농후사료 과량급여로 인한 소화기 질병의 예방, 치료

농후사료 과량급여로 인한 식체, 소화불량, 고창증, 과산증,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질환을 탁월하게 예방, 치료하며 유량을 10%나 증가시킵니다.

소의 질병치료시 보조요법 및 도입우에서 효과

질병치료시 치료약품과 병용하여 투여하면 제 1 위의 기능이 활발해져 회복이 빨라지고 도입우에서도 이동, 사양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식욕이 좋아지고 빨리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스티뮤렉스의 놀라운 효능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한풍산업주식회사

HAN POONG INDUSTRY CO., LT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천록빌딩 7층)

TEL 845-1171/4

* 본사 학술부로 연락주시면 스티뮤렉스에 관한 기술자료를 보내드립니다.